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38-14

# 남북대화

제78호

(2016.1~2018.12)



- 제1장 개관
- 제2장 남북정상회담
- 제3장 정치분야 회담
- 제4장 군사분야 회담
- 제5장 경제분야 회담
- 제6장 인도·사회분야 회담

부록

-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 남북회담 합의서



통일부



# 남북대화

제 78 호

(2016.1~2018.12)





# 목차

## Contents

제1장 개관	7
제2장 남북정상회담	
1. 제1차 대통령 특사 방북	17
2.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19
3.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
4.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2
5. 제2차 대통령 특사 방북	25
6. 9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27
7.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7
제3장 정치분야 회담	
1.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37
2.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	41
3.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44
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47
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50
6.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52
7. 남북통신실무회담	55

## 제4장 군사분야 회담

1.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59
2.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2
3.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65
4.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7

## 제5장 경제분야 회담

1.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73
2.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76
3.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79
4.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82

## 제6장 인도·사회분야 회담

1.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87
2. 남북체육회담	90
가. 평창 올림픽 참가 협의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90
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92
다. 남북체육회담	94
라.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	97
마.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99
3. 예술단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101
가.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101
나.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104
4.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106

##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111
2. 남북회담 합의서	157

# 제1장

## 개관







2015년 12월 개성에서 개최된 차관급 남북당국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2018년 1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때까지 2년 동안 남북회담은 공백기가 지속되었다.

2016년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으나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2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판문점 연락 통로와 군통신선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2월 12일부터 남북 간 통신망 운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후 북한이 5월 21일과 24일 2회에 걸쳐 통지문을 보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회담은 열리지 못하였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히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행사에서 직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6월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코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의 기초와 실천 과제들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독일 코르버 재단 연설(2017.7.6.)〉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둘째,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하략)…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7월 17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7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화 호응과 함께 판문점 남북 연락 통로와 서해 군통신선의 조속한 정상화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우리의 대화 재개 노력을 외면한 채 9월 제6차 핵실험, 11월 ICBM급 ‘화성-15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하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비핵화 자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그 전이라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 남북관계는 2018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남한 당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언론 발표를 통해 1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언론 발표를 통해 고위급회담 제의(2018.1.2.)〉**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외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중략)…

…아울러, 우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남북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이 소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략)…

북한은 1월 3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하면서 1월 3일 15시부터 판문점 연락통로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월 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 동의해왔다. 이에 따라 1월 9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서 2015년 12월 남북당국회담 이후 약 2년여 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

이렇게 재개된 남북대화는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 3회를 포함하여, 고위급회담 9회, 분야별 실무급회담 23회, 적십자회담 1회 등 총 36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함께 남북 간 현안문제를 협의하였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 19회, 군사분야 4회, 사회문화분야 7회, 경제분야 4회, 인도분야 2회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간 합의서는 4건이 체결되었으며 공동보도문은 19건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계기에 김여정 특사를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으며, 폐회식 때에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사파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하여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후 3월 2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일을 4월 27일로 정하였다.

2018년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한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다.

제2차 정상회담은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으며,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직후 북한의 요청으로 전격적으로 성사되었다. 회담 후 양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제3차 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간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대북특사 2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남특사 2회, 고위급회담 5회 등 총 9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각종 분야별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사안을 협의하였다.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은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은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과 통신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은 6월 1일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고,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도로·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8월 13일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0월 15일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협의하였다.

남북간 실무회담은 정치분야 7회, 군사분야 4회, 경제분야 4회, 사회문화분야 7회, 인도분야 2회 등 총 24회 개최되었다.

정치분야 실무회담은 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분야 실무회담 3회, 통신문제 실무회담이 2회 개최되었고, 3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1회 개최되었다. 11월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통신실무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광통신망 구축 등 통신 현대화 문제

들을 협의하였다.

군사분야 회담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차례 개최되었다. 6월 14일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 등에 합의하였다.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7월 3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으며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상호 시범점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제9차 장성급회담 이후 쌍방 간 협의해 온 군사 분야 합의내용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10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였다.

경제분야 회담은 철도협력분과, 도로협력분과, 산림협력분과 등 4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6월 26일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한지역 구간 현지 공동조사 진행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6월 28일에는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개최하여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와 북한지역 구간 현지 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은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 제2차 회담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산림협력과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사회문화·인도분야 회담은 체육분야 5회 등 총 9차례의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5차례의 체육회담을 통해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평창 동계패럴

림픽대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6월 22일 금강산에서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기로 하였다.

11월 7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을 개최하여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은 통일각에서 2차례 개최되었다. 남북은 1월 15일에는 140여 명의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구성된 북측 예술단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고, 3월 20일에는 160여 명의 우리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2차례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8년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총 36회)**

분야별	급 별	회 담 명	일 자	장 소	
정치 분야 (19회)	정상 회담	제1차 남북정상	4.27.	판문점 평화의집	
		제2차 남북정상회담	5.26.	판문점 통일각	
		제3차 남북정상회담	9.18.~20.	평양	
	고위급 회담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1.9.	판문점 평화의집	
		제1차 북한고위급 대표단 방남	2.9.~11.	서울	
		제2차 북한고위급 대표단 방남	2.25.~27.	서울	
		제1차 대통령 특사 방북	3.5.	평양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3.29.	판문점 통일각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6.1.	판문점 평화의집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8.13.	판문점 통일각	
		제2차 대통령 특사 방북	9.5.	평양	
	실무급 회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10.15.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준비 의전·경호·보도분야 1차 회담	4.5.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준비 통신분야 1차 회담	4.7.	판문점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준비 통신분야 2차 회담	4.14.	판문점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준비 의전·경호·보도분야 2차 회담	4.18.	판문점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준비 의전·경호·보도분야 3차 회담	4.23.	판문점 통일각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고위급 실무회담	9.14.	판문점 통일각	
	군사 분야 (4회)	장성급 회담	남북통신실무회담	11.2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6.14.	판문점 통일각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31.	판문점 평화의집	
실무급 회담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0.26.	판문점 통일각	
경제 분야 (4회)	실무급 회담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9.13.~14.	판문점 통일각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6.26.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6.28.	판문점 통일각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7.4.	판문점 평화의집	
인도·사회 분야 (9회)	실무급 회담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10.2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1.15.	판문점 통일각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1.17.	판문점 평화의집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2.27.	판문점 통일각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3.20.	판문점 통일각	
		남북체육회담	6.18.	판문점 평화의집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6.22.	금강산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	11.2.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	1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12.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제2장

### 남북정상회담





## 1. 제1차 대통령 특사 방북(18.3.5.~6.)

## 가. 개요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와 남북 당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남북대화가 재개되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

우리측은 이에 대한 답방으로 남북 간 지속적인 평화·협력을 위한 대북특별사절단을 3월 5일부터 6일까지 파견하겠다는 대북통지문을 3월 2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하였다. 북측이 다음 날 우리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3월 5일부터 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하였다.

## 〈남측 특사단 명단〉

수석특사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특사	서 훈(국가정보원장)	천해성(통일부 차관)
	김상균(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나. 진행경과

우리측 특사단은 3월 5일 평양에 도착하여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3월 6일에는 고봉산 초대소에서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 만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정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다. 대북특사단은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였고,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6개 항목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를 3월 6일 서울 귀환 후 발표하였다.

###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발표문 주요내용〉

-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 진행
- 남북 정상 간 Hot Line 설치 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첫 통화 실시
-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확인
-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용의 표명
- 대화 기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 중지
- 남측 예술단 및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초청



〈대북특사 1차 방북('18.3.5.~6. 노동당 본부청사)〉

## 2.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은 서면협의를 통해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4월 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통신 실무회담을 4월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분야별 1차 실무회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세부사안들을 협의하였고, 이어 추가로 2차 통신 실무회담은 4월 14일, 2차와 3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은 4월 18일과 4월 23일에 각각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여 정상회담 세부절차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 3.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18.4.27.)

#### 가. 개요

대북특사 방북,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야별 실무회담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첫 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평양 정상회담 이후 11년만에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 〈남북 공식 수행원 명단〉

남측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국가안보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조명균(통일부 장관) 송영무(국방부 장관) 강경화(외교부 장관) 정경두(합참의장)
북측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당 중앙위 부위원장) 최취(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수용(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여정(당 중앙위 제1부부장) 리명수(총참모장, 인민군 차수) 박영식(인민무력상) 리용호(외무상, 당 정치국 위원)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나. 진행경과

2018 1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과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T3) 건물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양 정상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하였으며, 평화의집 앞으로 이동하여 국군 의장대의 사열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되었다. 오전 회담에 우리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은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배석하였다. 오후회담

종료 후 오찬은 남북 개별 오찬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일정은 남북 정상 기념식수 행사부터 시작되었으며, 백두산과 한라산의 흙과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뿌리는 식수행사 이후 양 정상은 수행원 없이 40분간 도보다리 산책과 환담을 진행하였다. 오후 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다.

이어 남북 정상간 「판문점선언」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 환영 만찬 및 환송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1시 30분경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북측으로 귀환하면서 2018 1차 남북정상회담은 종료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천명,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 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공동 목표 확인

양 정상간 정기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한 수시 논의,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 〈남북정상회담(‘18.4.27. 판문점 남측지역)〉



〈남북 정상 첫 만남〉



〈도보다리 환담〉



〈소나무 기념식수〉



〈「판문점선언」 공동기자회견〉

## 4.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18.5.26.)

### 가. 개요

2018년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접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등에 사의를 표명하고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하기로 하였다.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서 송환된 억류자를 마중한 후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



1부상이 미 고위당국자의 '선택포기' 발언을 문제 삼아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담화를 발표하고, 5월 24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결정으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5월 16일 예정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맥스 썬더 한미군사훈련을 이유로 연기하는 등 남북관계도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5일 오후 북측은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 나. 진행경과

2차 남북정상회담은 5월 26일 15시부터 17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실무협상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판문점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5.26 남북정상회담」 발표문 주요 내용〉

-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함
-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함.
-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함.

아울러 남북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 간의 후속회담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18.5.26. 판문점 통일각)〉

## 5. 제2차 대통령 특사 방북(18.9.5.)

### 가. 개요

제2차 대북특사 방북은 8월 13일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우리측은 8월 31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특사대표단을 9월 5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북측이 동의함에 따라 대북특사가 두 번째로 방북하게 되었다.

#### 〈남측 특사단 명단〉

수석특사	정의용(국가안보실장)	
특사	서 훈(국가정보원장)	천해성(통일부 차관)
	김상균(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청와대 국정상황실장)

### 나. 진행경과

대통령 대북특사단은 9월 5일 특별기를 이용하여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접견을 비롯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대북특사단 방북에서 남북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회담 준비를 위한 각종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

한 대화를 진전시켜 정상회담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발표문 주요내용〉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 개최
-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한 협력 의사 표명
-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구체적 방안에 합의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



〈대북특사 2차 방북(‘18.9.5)〉

## 6. 9월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 실무회담(\*18.9.14.)

2차 대북특사 방북에서의 합의에 따라 9월 14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서해직항로를 통한 대표단의 평양 방문, 주요일정 생중계, 선발대 파견 등 실무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결과 주요내용〉

-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평양을 방문
- 평양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는 9월 16일에 파견(육로)
- 이번 평양방문일정 중 양 정상의 첫 만남과 정상회담 주요일정은 생중계
- 북측은 남측의 취재와 생중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7.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18.9.18.~20.)

### 가. 개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대북특사 2차 방북, 남북고위급 실무회담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우리측은 선발대 83명을 9월 16일 파견하였다. 9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 및 특별수행원 등 160명의 대표단이 전용기를 이용하여 방북하였다. 공식 수행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4명이며, 특별 수행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태원 SK 회장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3명으로 구성되었다.

**〈남측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

공식 수행원 (14명)	강경화(외교부 장관)	조명균(통일부 장관)	송영무(국방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산림청장)	서훈(국가정보원장)	정의용(국가안보실장)
	김현철(경제보좌관)	주영훈(경호처장)	김종천(의전비서관)
	김의겸(대변인)	윤건영(국정기획상황실장)	
특별 수행원 (53명)	이해찬(민주당 대표)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정의당 대표)
	박원순(서울시장)	최문순(강원도지사)	최태원(SK 회장)
	이재용(삼성 부회장)	구광모(LG 부회장)	김용환(현대차 부회장)
	박용만(대한상의 회장)	손경식(경총 회장)	최정우(포스코 회장)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무경(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신한용(개성공단 기업협회장)	
	오영식(코레일 사장)	안영배(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종갑(한국전력 사장)	이동걸(한국산업은행 총재)	
	이재웅(쓰카 대표)	장병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한완상(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위원장)		
	백낙청(한반도포럼 명예이사장)	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임동원(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홍석현(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장상(세계교회협의회회 공동의장)	
	박지원(국회의원)	최완규(前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염무웅(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김덕룡(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김홍걸(민화협 상임의장)	
	김희중(천주교 대주교, KCRP 회장)	원택(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이홍정(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한은숙(원불교 교정원장)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	유홍준(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차범근(축구 감독)	현정화(탁구대표팀 감독)	
	박종아(평창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주장)	안도현(시인)	
이에스더(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에일리(가수)		
김형석(작곡가)	지코(가수)		
알리(가수)	최현우(미술사)		

## 나. 진행경과

### (1) 1일차(9.18.)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은 9월 18일 전용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를 통해 오전 9시 49분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전용기 앞에서 영접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장대 사열 이후 양 정상은 함께 무개차로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북측 영빈관 백화원에 도착하였다. 남북 정상은 백화원에서 별도의 개별 오찬을 가진 후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15시 45분부터 17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는 남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배석하였다.



〈남북정상회담 1일차 회담(9.18.)〉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경제, 시민사회·노동·종교 등 분야별로 북측 인사 면담을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평양대극장에서 남북 정상 내외 및 우리측 대표단, 평양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예술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삼지연관현악단이 15개의 프로

그램을 공연하였다. 남북 정상은 공연 관람 후 목란관으로 이동하여 20시 30분 부터 23시까지 환영만찬을 진행하고 첫 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2) 2일차(9.19.)

남북 정상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백화원에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는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 위 부위원장이 배석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군사합의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은 9월 19일 11시 20분에 백화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 관계 해소,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등 6개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회의 후 남북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 〈 9월 평양공동선언(9.19) 주요 내용 〉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함

1.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갈 것임



- ①「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 준수·이행 ②남북군사공동위원회 조속 가동,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 점검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2.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 더욱 증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함
- ①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②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협의 ③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 ④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3.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함
- ①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 ②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4.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 고조,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함
- ①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 ②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 ③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
5.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①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 폐기 ②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 ③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함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9.19.)〉

남북 정상 내외를 비롯한 양측 대표단은 오후에 옥류관에서 공동오찬을 하였다. 오찬 후 문재인 대통령은 백화원 정원에 기념식수를 하고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19시 15분부터 남북 정상 내외는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공동만찬을 진행하였으며, 만찬 종료 후 21시부터는 5.1 경기장에서 북한의 집단체조인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연에 앞서 15만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5.1 경기장 연설(9.19.) 내용〉

...(전략)...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 (3) 3일차(9.20.)

남북 정상은 9월 20일 오전에 백두산지역을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삼지연공항에 도착하였으며, 공항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 내외의 영접을 받고 함께 백두산으로 이동하여 천지를 관람하였다. 이어 남북 정상은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삼지연공항을 출발하여 귀환하였다.



〈백두산 천지 방문(9.20.)〉

## 다. 결과

평양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9월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울러, 평양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회담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계기에 각국 정상 및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3장

### 정치분야 회담





## 1.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8.1.9.)

## 가. 개요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당일 오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북측은 1월 3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북측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1월 5일에는 통지문을 통해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대해 동의해왔다. 이로써 2015년 12월 개최되었던 차관급 남북당국회담 이후 2년만에 고위급 남북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표	천해성(통일부 차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안문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흥(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 사무차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원길우(체육성 부상) 황충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리경식(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

## 나. 진행경과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측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반도에 평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갖고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전체회의 시 기초발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측 선수단 파견 등을 제안하면서 공동 입장, 공동 응원, 예술단 행사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개최할 것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당국회담 개최와 산림·보건으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남측 기초발언 요지〉

- 상호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하는 것이 중요함.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임.
-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함.
  - 남북 선수단 개최식 공동 입장 및 공동응원단 구성
  - 예술단 파견 및 합동 문화행사 개최, 북측 참관단 방문 제안,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북측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참가
- 군사당국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함.
-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3월 중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위해 1월 하순경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산림, 보건으로 협력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폭넓게 실현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협의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제의함.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고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나간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원칙하에 남북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나기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함.
-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협의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들에 대한 제안을 밝힘.
  -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임.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파견할 것임.
  - 둘째,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데 대한 문제임.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풀어나갈 데 대한 문제임. 서로 일방적인 입장과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입장 차이를 줄이고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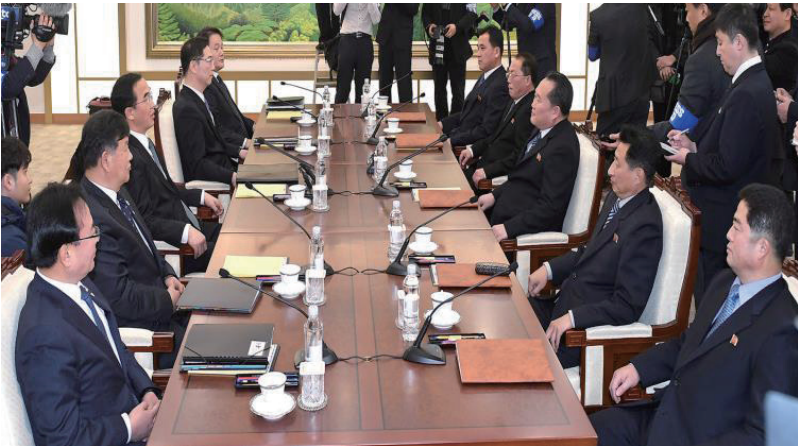
양측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고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8.1.9. 판문점 평화의집)〉

양측은 전체회의와 별도로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4차례의 대표접촉 및 종결회의를 거쳐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를 협의하고 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1.9.) 요지〉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음.
  -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음.
  -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 남북선언 존중,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음.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음.

## 2.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을 계기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단원 3명과 수행원 19명으로 구성된 고위급대표단 23명이 2월 9일에서 11일까지 서울과 평창을 방문하였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국무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시일 내 평양 초청의 뜻을 전하였다.

### 〈개회식 계기 방남 북측 대표단 명단〉

단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원	김여정(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취(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도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단원 1명과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 8명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평창을 방문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앞서 평창 알펜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면담 및 오만찬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폐회식 계기 방남 북측 대표단 명단〉

단장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단원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 가. 개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문(‘18.2.9.~11.)

2월 9일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KTX 특별열차를 이용, 평창으로 이동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VIP 사전 리셉션 참석 등에 이어 개회

식 행사를 공동 관람하였다.

2월 10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찬에 참석하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음을 밝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초청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하는 한편, 북측이 미국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강릉으로 이동하여 통일부 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와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2월 11일에는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 총리 주최 환송 오찬에 참석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총리 언급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북측으로 귀환하였다. 한편 북한 예술단은 고위급대표단 방문에 앞서 2월 6일 ‘만경봉92호’를 이용해 동해 묵호항에 도착하였고 2월 8일 강릉과 2월 11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 나. 폐회식 계기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문(18.2.25~27)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2월 2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한 후 서울에서 KTX를 이용하여 평창으로 이동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고 북측의 협조로 올림픽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치러질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당부하였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하고 북미대화 용의를 표명하였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통일부 장관 주최 공동만찬에 참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관람하였다.

2월 26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최한 공동오찬에 참석하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 4국과의 신뢰 형성 및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과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하였다.

2월 27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과 공동으로 조찬을 함께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 후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귀환하였다.

### 3.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18.3.29.)

#### 가. 개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3월 5일에서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였다.

이후 우리측은 3월 22일에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이 3월 24일 이에 동의하여 3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표	천해성(통일부 차관) 윤영찬(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일자, 형식 및 주요일정, 의제, 경호·의전·보도·통신 실무접촉, 선발대 파견 문제, 정상간 직통전화 첫 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 〈남측 기초발언 요지〉

- 정상회담 형식은 소수 인원이 배석하는 단독 회담 방식으로 정상 간 '최대한 긴 시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을 제의함.
-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는 문제로 정하고 양 정상이 남북관계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경호·의전·보도·통신 실무접촉을 4월초부터 시작하되 선발대 파견과 편 의보장 등 기타 절차 문제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전례를 준용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자와 장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전, 경호, 통신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함
- 의례, 호위, 통신 등 부문별 실무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함.
- 실무회담은 판문점 통일각과 평화의집으로 하며, 순차와 날짜는 오늘 회담에서 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함.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18.3.29. 판문점 통일각)〉

양측은 전체회의 이후 대표접촉과 수석대표접촉 및 종결회의를 통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 회담 개최 △4월 4일 의전, 경호, 보도실무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고 3개 항의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3.29.) 요지〉

-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의전, 경호, 보도실무 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음.
-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 4.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8.6.1.)

### 가. 개요

우리측은 5월 8일,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5월 14일에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같은 날 북측은 회담 개최에 동의하면서 날짜는 별도 통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북측은 5월 15일 회담을 5월 16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대표단 명단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회담 당일 북측은 '맥스 썬더' 훈련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통보해왔고 우리측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5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후 5월 26일에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6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5월 29일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고, 북측도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남중(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국무총리실 심의관) 류광수(산림청 차장) * 교체대표	김윤혁(철도성 부상) 원길우(체육성 부상)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나. 진행경과

양측은 전체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6.15 공동선언 기념 행사 장소·일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후속 실무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측 예술단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진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후속 실무회담 일정에 대해 수용하였고, 또한 예술단 공연을 위한 조속한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의 경우 시일이 촉박한 만큼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미 있는 기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측은 추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앞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세부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보도문안을 조율하였다.

종결회의에서 북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다시금 확인한 점과 회담 분위기가 협력적으로 조성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측도 이번 회담과 같은 자세라면 앞으로 남북 간에 못 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18.6.1.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은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별다른 의견충돌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다. 양측은 전체회의의 2회, 수석대표접촉 4회, 대표접촉 1회 등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협의한 후,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공동보도문(6.1) 요지 〉

- 남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가까운 시일 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
  - 6.15 공동선언 18돌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함.
- 남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함.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함.
  -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의 교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함.
  - 이산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함.
  - 10.4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함.
-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함.

## 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8.8.13.)

### 가. 개요

북측은 8월 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8월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같은 날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명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이어 8월 10일 우리측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였고 8월 11일 북측 또한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표	전해성(통일부 차관) 남관표(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국무총리실 심의관)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철도성 부상)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나. 진행경과

양측은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북측은 철도·도로, 산림 분야의 남북 간 협력·진행 상황을 언급하였고, 우리측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당면하여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어 수석대표 접촉에서 양측은 의제 전반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장소, 분야별 실무회담(경호·의전·통신)

개최 문제, 정상회담 의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 및 개소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추진, 산림 협력 문제 등도 논의하고 북측 예술단 공연, 10.4 선언 기념행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군사합의서 체결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종결회의에서 북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있어 더욱 속도를 내고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8.8.13. 판문점 통일각)〉

양측은 전체회의의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2회 등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8.13.) 요지〉

-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음.
-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음.

## 6.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18.10.15.)

### 가. 개요

남과 북은 10월 5일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고위급 대표단 협의를 진행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0월 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0월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10월 12일 답신을 통해 회담 날짜를 10월 15일로 변경하고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여 10월 12일 대표단 명단 및 주요 일정을 통보하였고, 북측도 10월 13일 대표단 명단을 통지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명균(통일부 장관)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표	천해성(통일부 차관)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안문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김윤혁(철도성 부상)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체육성 부상) 박명철(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나. 진행경과

북측은 전체회의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과, 산림·보건의료·체육 실무회담 개최 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 기술적 부분은 문서로 우선 협의하고 11월 중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동의입장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문제와 함께 공사 착수 전 우리측 자산의 몰수·동결 해제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우리측 국회에서 실무회담 일정을 제시하면 북측 최고인민회의에서 검토하여 회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양측은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우리측은 북측 예술단 공연 문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진 대표접촉 및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양측은 철도 현지조사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산림협력분과회담(10.22.), 보건의료분과회담(10월 하순), 체육회담(10월말)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종결회의에서 양측은 금번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8.10.15. 판문점 평화의집)〉

양측은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2회, 대표접촉 2회 등을 거쳐 9월 평양공동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 안들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된 7개 항을 정리하여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10.15.) 요지〉

- 남북은 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함.
-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함.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함.
- 남북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을 1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남북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남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함.
-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함.



## 7. 남북통신실무회담(18.11.23.)

### 가. 개요

북측은 11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 간 통신망 개선을 위한 실무회담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11월 21일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11월 19일 우리측은 회담날짜를 11월 23일로 수정 제의하였고, 11월 21일 오전에 북측이 우리측 제안에 동의해오에 따라 11월 23일 남북통신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정창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을 수석대표로 5명이, 북측에서는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5명이 회담에 참여하였다.

### 나. 진행경과

양측은 전체회의 1회, 대표접촉 1회, 종결회의 순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남북 당국 간 통신이 구축된 지 46년이 지났으면서 현재 망을 광통신망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측은 동의하였다. 이어 양측은 대표접촉에서 판문점 지역 광통신선 연결 방식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남과 북은 앞으로 남북 당국 간 광통신망 구축 등 통신망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제4장

### 군사분야 회담





## 1.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 가. 개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5월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한미연합훈련 문제로 지연되다가 6월 1일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이 회담개최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김도균(국방부 대북정책관)	안익산(육군 중장)
대표	황정주(통일부 회담1과장) 조용근(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합참 해상작전과장) 박승기(국가안보실 행정관)	엄창남(육군 대좌) 김동일(육군 대좌) 오명철(해군 대좌) 김광협(육군 중좌)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대표접촉 8회, 종결회의 등 총 13회 접촉을 진행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군사 당국회담의 체계화·정례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동·서해 군통신선 완전 복구 및 군 주요직위자 간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조치 등을 제안하는 한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제의하였다.

〈남측 기초발언 요지〉

-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을 7월 초·중순에 제주도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상시적으로 쌍방 통신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할 것을 제안함.
- 남북의 군 주요직위자 간 군사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직통전화 설치를 제안함.
-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함.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위한 조치 협의와 서해 평화수역과 어로활동 보장 방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협의해야 할 것임.
- 조선 서해 열점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북남사이 협력과 교류, 내왕과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임.

양측은 이어진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2004년 6월 4일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군통신선 복구에 합의하고, 양측 입장에 차이가 있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군 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설정, 적대행위 중단 등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우리측이 제안한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북측이 군사회담 성과를 보아가면서 개최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합의되지 못하였다.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남북은 협의된 주요 내용과 합의된 사항을 정리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6.14.) 요지 〉

-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음.
-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음.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11년 만에 개최된 군사 당국간 회담으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 협의에 착수하고, 우선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7.31.)

### 가. 개요

남북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한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쌍방 간 문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였고, 우



리측은 의견교환 사항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제의하였다. 회담은 몇 차례의 상호 수정 제안 과정을 거쳐 7월 3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김도균(국방부 대북정책관)	안익산(육군 중장)
대표	이중주(통일부 회담1과장) 조용근(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합참 해상작전과장) 한석표(국가안보실 행정관)	엄창남(육군 대좌) 김동일(육군 대좌) 오명철(해군 대좌) 김광협(육군 중좌)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4회, 대표 접촉 3회, 종결회의 등 총 10회 접촉을 진행하였다.

북측은 별도의 기본발언 없이 발언 요지를 통해 양측의 입장이 비교적 일치된 문제들을 먼저 토의하여 확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문제 등 쌍방 간 입장차이가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북측 발언 요지〉

- 쌍방의 입장이 비교적 일치된 문제들을 먼저 토의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 쌍방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은 의견을 조율하자고 제안함.
-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 남측이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함.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고 제의하였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지상·해상에서의 포사격기동훈련 중지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측 기초발언 요지〉

- 북측이 제안한 '판문점지역 비무장화'에 대해 공감하며, 조속한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제의함.
-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힘.
-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입장을 밝힘.
-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지상·해상에서의 포사격·기동훈련 중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함.
-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된 조치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제의함.

양측은 이후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온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7.31.)〉

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견해 일치를 이루었고, 구체적 이행시기 및 방법 등은 계속 논의 해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은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4.27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추진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한 판문점선언의 핵심 실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에 관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 3.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18.9.13.~14.)

#### 가. 개요

남북은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쌍방 간 문서교환 방식으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안) 협의를 진행하였다. 북측이 9월 6일 실무회담을

9월 13일 개최하자고 제의해온데 대해 우리측이 9월 7일 동의함에 따라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13일과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조용근(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엄창남(육군 대좌)
대표	이종주(통일부 회담1과장) 안상민(합참 해상작전과장)	김동일(육군 대좌) 리승혁(육군 상좌)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의 4회, 수석대표 접촉 6회, 종결회의의 등 총 11회 접촉을 통해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에 합의하였다.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18.9.13.)〉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이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토대가 되었다.

#### 4.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10.26.)

##### 가. 개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10월 18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10월 26일 개최하자고 제의하자 북측이 10월 20일 동의하면서 10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김도균(국방부 대북정책관)	안익산(육군 중장)
대표	이종주(통일부 회담1과장) 조용근(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합참 해상작전과장) 황 준(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김동일(육군 대좌) 함인섭(육군 대좌) 김광협(육군 대좌) 오명철(해군 대좌)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1회, 대표 접촉 5회, 종결회의 등 총 9회 접촉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전체회의에서 회담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상호 확인하였다. 남북은 군사합의 이행실태 평가, 상호 적대행위 중지, 상호 GP 시범철수,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조사, JSA 비무장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9.19 군사합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10.26.)〉

남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고 적대행위 중지, GP 시범 철수를 위한 조치, 한강(임진강) 하구 남북공동조사단 구성,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등 사안별 주요 협의 내용을 상호 확인하였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채택 없이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기 보도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남측 보도문(10.26) 요지〉

- 남과 북은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음.
- 남과 북은 금년 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안전파괴 조치 이행, 12월중 상호 검증 통해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함.
-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 '19.4월부터 본격 진행 위한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함.
-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
-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약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음.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은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당국 간 합의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화 모멘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제5장

### 경제분야 회담





### 1.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18.6.26.)

#### 가. 개요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은 남북정상회담(18.4.27)에서 양 정상이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6월 1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들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6월 19일에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하였으나, 북측은 6월 24일에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미 2008년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각각 개최된 전례에 따라 철도와 도로협력 분과회의들을 따로 운영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이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철도분야 회담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8.1.29.)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김윤혁(철도성 부상)
대표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손명수(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김창식(철도성 대외사업국 부국장) 계봉일(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대표접촉 5회, 종결회의를 진행하고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세부내용을 조율하였다.

북측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동시병행의 원칙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남측이 설비·자재를 부담하고 북측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서해선(개성-신의주) 구간의 현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07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선 미진구간 연결, 화물열차 운행 및 철도운영위원회 재개, 기술과제서 작성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조속한 철도 현대화에는 동의하나, '07년 현지조사의 적실성 문제와 설비·자재 지원의 대북제재 연관성을 설명하고 먼저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양측은 동해선·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철도 현대화 대책을 세워 나가며,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철도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실시하되, 경의선-동해선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7월 중순경 경의선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주변 공사,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남북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18.6.26.)〉

### 〈공동보도문(6.26) 요지〉

1.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함.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 사업으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①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 ② 현지공동조사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 이어서 동해선 진행
3.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함.
4.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의,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함
5.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함.

양측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18년 7월 20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을 공동점검하고 7월 24일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및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8월 9일 남북철도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거쳐 11월 30일에서 12월 5일까지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 및 12월 8일에서 12월 17일까지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12월 26일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측 지역 판문역에서 진행하였다.

## 2.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18.6.28.)

### 가. 개요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에 이어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이 6월 2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남북도로분야 회담도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8.2.12.)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대표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김기철(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대표접촉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종결회의를 진행하고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세부내용을 조율하였다.

북측은 전체회의에서 동·서해선 동시병행 원칙, 현대화 구체적 실천문제, 현대화 기술적 담보 대책 마련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도로 연결·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조사단'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을 협의·확정하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8월 초에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기타 실천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판문점선언의 이행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하여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사항들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한 후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18.6.28.)〉

## 〈공동보도문(6.26) 요지〉

1.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함.
2.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함.
  -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원산, 경의선은 개성-평양, 추후 확대
  -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합의
  -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
  -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
3. 남북은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함.
  - ①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동해선으로 진행
4. 도로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함.
5.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필요에 따라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함.

이후 양측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18년 8월 13일 남북도로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를 진행하고 8월 13일에서 8월 20일까지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12일에는 남북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해선(고성-원산 간) 새로운 노선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후 12월 26일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측 지역 판문역에서 진행하였다.



### 3.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18.7.4.)

#### 가. 개요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8.6.1.) 합의에 따라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6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산림협력분과회의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월 24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7월 4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해왔다. 우리측은 6월 25일 다시 통지문을 통해 대표단 이동 등을 고려하여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동의함에 따라 남북산림협력분과 1차 회담이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산림협력을 의제로 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개최된 것은 지난 2007년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약 11년 만이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류광수(산림청 차장)	김성준(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대표	김훈아(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 조병철(산림청 남북산림협력추진단장)	백원철(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대표접촉 3회, 수석대표접촉 1회, 종결회의를 진행하고 의제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세부내용을 조율하였다. 양측은 판문점선언 이행

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남북 간 산림협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실천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측은 남북 산림협력 문제가 남북 전역의 산림녹화를 달성하고 우리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 토대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림보호와 복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산림협력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산림병해충 방제 상호협력 원칙하에 현장방문과 공동방제 일정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진행을 위해 방제지역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고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은 산림 조성·보호 부문의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와 산림과학기술 부문 협력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산림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산림협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우선 실무기구 구성이 필요함을 북측에 강조하였다. 실무기구가 구성되어야 전문가 등의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함을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 문제는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며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18.7.4.)〉

#### 〈공통보도문(7.4) 요지〉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함.(7월 중순 방제지역 현장방문, 남측은 병해충 방제 대책 수립)
3. 남과 북은 과학기술 성과 교류 및 산림과학기술분야에 협력하기로 함.
4.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이행하는데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함.

제1차 산림협력분과회담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중순에 추진하기로 했던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은 7월 30일 북측이 연기를 통보하여 8월 8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 4.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18.10.22.)

### 가. 개요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은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소나무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을 10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박종호(산림청 차장)	김성준(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대표	임상섭(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	최봉환(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4회, 대표접촉 2회, 종결회의를 진행하고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였다. 양측 모두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자리인 만큼 회담은 큰 의견 차이 없이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양측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산림 병해충 예방 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11월 중에 북측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2019년 3월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 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2018년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를 비롯한 제반 문제들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산림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행 기구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에 이어 재차 강조하였으나 북측은 분과회담에서 산림협력을 계속 수립,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회담을 마무리하였다.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18.10.22.)〉

### 〈공동보도문(10.22.) 요지〉

1. 남과 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진행, 산림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함.
  - 11월 중 소나무재선충 방제 필요 약제 제공, 다음해 3월까지 공동방제 진행
2. 양묘장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 계속 협의, 북측 양묘장과 산림기자재 공장 현장방문 진행
3. 남과 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4.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함.

우리측은 제2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16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전달 등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11월 18일 호응에 응에 따라 11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달 및 개성 왕건릉 인근 공동방제를 진행하였다.

## 제6장

### 인도·사회분야 회담







## 1.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18.6.22.)

## 가. 개요

남북 정상이 4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1일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이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박경서(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용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김병대(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류재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우광호(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한상출(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전체회의에서 당면한 8.15 계기 상봉 규모를 남북 각각 200명씩으로 하고 생사확인 의뢰 규모를 3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고령 이산가족의 불편 최소화와 상봉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봉방식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이산가족 전체 대상 생사·주소 확인, 서신·영상편지 교환,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 정례화, 명절 계기 고향방문 등을 금년 내에 착수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등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제반 인도적 문제들도 협의·해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측은 이번 적십자회담은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8월 하순에 100명 규모로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상봉방식도 전례에 따를 것을 제안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2명의 동반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북측은 1명으로 하되 필요시 2명까지 양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18.6.22.)〉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2회를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하여,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며, 그 밖의 인도적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 공동보도문(6.22.) 요지 〉

- 8.15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함.
  - 상봉행사는 8.20.~8.26에 진행하며, 대상은 남북 각각 100명씩, 거동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1명의 가족 동반
  - 생사확인되서는 73.까지, 회보서는 7.25.까지, 최종명단은 8.4에 교환
  - 남측 선발대는 상봉시작 5일전 파견
  -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원활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남측 시설 점검단을 7.27.부터 파견하기로 함.
-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1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170명의 가족 833명이 상봉하였다.

이후 10월 15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후 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서협의를 지체되면서 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 2. 남북체육회담

### 가. 평창 올림픽 참가 협의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18.1.17.)

#### (1) 개요

1월 9일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1월 12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 통지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월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1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1월 17일에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동의함에 따라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천해성(통일부 차관)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안문현(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원길우(체육성 부상) 김강국(조선중앙통신사 기자)

#### (2) 진행경과

우리측은 북측 대표단 규모, 이동경로,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방안, 남북 합동 문화행사,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등에 대한 북측의 구상을 먼저 밝혀줄 것을 제안하였다.

북측은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구체적 제안 문건을 제시하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평창 올림픽 참가 협의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18.1.17.)〉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6회, 대표접촉 2회를 통해 큰 이견 없이 사안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북한 응원단·태권도시범단 파견,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평창 패럴림픽 참가 등에 합의하였다.

#### 〈공통보도문(1.17.) 요지〉

-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남과 북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함.
-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 △30명 규모의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함.
- 북측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하며, 귀환 시기는 분야별로 양측 간 합의하도록 함.
- 북측은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함.
- 북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함.
- 남과 북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과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함.
  -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
-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공동훈련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되었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은 북측의 취소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22명, 선수단 46명, 예술단 137명, 태권도 시범단 31명, 기자단 21명, 응원단 229명, IOC관계자 2명, NOC관계자 4명 등 총 492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올림픽 개회식에는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였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구성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대회에 참가하였다.

## 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18.2.27.)

### (1) 개요

남과 북은 1월 17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을 2월 27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황충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대표	임찬규(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패럴림픽 국장) 송혜진(통일부 과장)	정 현(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윤 철(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장애자체육협회 부서기장)

## (2) 진행경과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북측 대표단 규모와 체류기간, 개최식 공동입장, 이동경로, 예술단 공연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타진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키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 대표단과 선수단 규모 및 구성, 이동경로, 방남 및 귀환일자, 숙식장소, 입촌식, 통신보장, 편의보장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8명) 외에 참관 선수 12명 추가파견, 경의선 육로 이용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장애인 선수 편의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접촉(18.2.27.)〉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1회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였고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보도문에 합의하였다.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는 예술단과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단과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3월 7일에 파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공동보도문(2.27) 요지〉

-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함.
-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로 이동 함.  
-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3월 7일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 시기는 양측 간 협의하기로 함.
- 북측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함.
-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측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였다. 북측 선수단 20명(크로스컨트리 2명, 참관선수 2명, 감독 2명, 지원인력 12명)과 대표단 4명은 경의선 육로로 3월 7일 방남하였다. 개회식에서 남측 선수단은 태극기, 북측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고 개별 입장하였다. 북측은 크로스컨트리 좌식 15Km와 1.1Km 2개 종목에 참가하였으나, 메달획득 없이 경기를 마감하였다.

## 다. 남북체육회담(‘18.6.18.)

### (1) 개요

6월 1일 개최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 대회 공동 진출 및 남북통일농구경기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통지문을 통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은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과 관련한 개최식 공동입장, 한반도기 독도 표기문제,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와 체육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전총렬(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원길우(체육성 부상)
대표	이해돈(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김석규(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 송혜진(통일부 과장) 박철근(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박천종(체육성 국장) 홍시건(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 (2) 진행 경과

양측은 기조발언 낭독을 생략하고, 바로 회담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 자료를 교환한 후 쟁점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체육회담(‘18.6.18.)〉

남과 북은 전체회의와 3차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한 끝에 7월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시안게임 개최회식 공동입장, 장애인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상대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남북 간 체육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공동보도문(6.18.) 요지 ▶

- 양측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 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고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
-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회식에 공동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 깃발은 한반도기, 노래는 아리랑,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함.
- 2018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사이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함.
-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통일농구경기(7.4.~7.5., 평양)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2018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10.6.~10.13., 자카르타)에 일부 종목의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101명)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방북하였고, 남북 혼합경기과 친선경기로 구분하여 2차례 경기를 진행하였다.

## 라.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18.11.2.)

### (1) 개요

10월 15일 「평양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체육회담을 10월말 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북측은 10월 30일 회담 날짜를 11월 2일로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11월 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원길우(체육성 부상)
대표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국무총리실 협력관) 박철근(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고철호(민족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리은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 (2) 진행경과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체육협력에 대한 기본입장을 교환한 후 회담 일정협의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체육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 체육교류 공동추진단 구성 등이 논의되었다.



〈제1차 남북체육분과회담(‘18.11.2.)〉

양측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진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개최 의향 서신을 보내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고, 뜻깊은 계기에 친선경기를 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한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 〈공동보도문(11.2.) 요지〉

-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 단일팀 출전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부터 실행하도록 함.
-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함.
-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과 친선경기진행 등 체육교류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26회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19.1.10.~1.27., 독일·덴마크)에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였다. 단일팀은 남측 16명, 북측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측 100여 명, 북측 2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응원단이 한반도 기를 흔들며 응원하였다.

## 마.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18.12.14.)

### (1) 개요

11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된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계기 남북 체육 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논의한 데 따라 우리측은 12월 7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남북체육분과회담을 12월 13일 또는 12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이 12월 8일 남북체육분과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12월 14일 개최에 동의하여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노태강(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원길우(체육성 부상)
대표	이주태(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송혜진(국무총리실 협력관) 박철근(대한체육회 국제본부장)	고철호(민족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리은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 (2) 진행경과

양측은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순으로 회담을 빠르게 진행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기초발언을 생략하고,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한 기본입

장과 제안내용 중심으로 각각 입장을 표명하였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19년 2월 15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공동서신도 빠른 시일 내에 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선수선발, 단일팀 구성 시기, 합동훈련, 패럴림픽 공동 진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단일팀 종목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단일팀 출전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문서교환과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평창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 우리측이 제안한 체육교류 사업에 대해 북측은 추후 문서협의를 통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2019년 남자세계핸드볼 선수권 대회 단일팀 출전은 1차 남북체육분과회담(11.2.)에서 논의했던 것과 같이 진행하며 도안 및 등번호 등에 대해서는 감독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18.12.14.)〉

### 〈 공동보도문(12.14) 요지 〉

-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체육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공동 진출과 단일팀 출전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합동훈련 등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
-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개최 유치, 2020 도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하여 체육분야 교류협력 문제는 문서교환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의하도록 함.

동 회담 합의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북측 김일국 체육상이 3자 회담을 갖고,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3. 예술단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 가.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18.1.15.)

#### (1) 개요

1월 9일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북측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측은 1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를 통지문을 통해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고 우리측이 동의하여 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예술단 파견 관련 기본 입장을 먼저 교환한 후 기술적·실무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북측은 공연장 및 관람객 규모에 관심을 두면서 가급적 최상의 조건에서 가능한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이우성(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권혁봉(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
대표	이원철(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통일부 회담3과장)	안정호(삼지연 예술단 무대감독) 현승월(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삼지연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김종수(문화성 실장)

## (2) 진행경과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공연장, 공연일정, 이동경로, 수송·숙소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공연일정 및 예술단 규모, 공연 프로그램, 사전 점검단 파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연 장소는 강릉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 외에 북측 의사를 고려하여 추후 문서교환 및 현장답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공연 준비를 위해 모든 성의를 다 하고 있으며, 공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 공연형식에 맞는 공연장소를 비롯한 기술적 조건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술단 규모는 삼지연관현악단 80명을 기본으로 하고 140여명의 배우와 지휘자 등이 출연하는 1시간 30분가량의 음악무용 중



합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장 조건으로는 예술단 규모와 공연 내용에 상응하는 공연장을 요구하였으며, 2~3일의 공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일정(9일, 11일, 12일)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동경로로는 판문점-서울-평창을 제시하였다.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18.1.15.)〉

양측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1회를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하였고 예술단 규모, 공연장소 등 북측 예술단 파견에 따른 제반 사항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예술단의 공연을 위한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을 위해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 밖의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동보도문(1.15) 요지〉

-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함.
-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함.
- 북측 예술단의 공연을 위하여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 설비, 기재 설치 등의 실무적 문제들은 협의하여 풀어나가며 북측은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함.
-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함.
-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함.

동 회담의 합의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이 강릉아트센터(2.8.)와 서울 국립중앙극장(2.11.)에서 개최되었다.

## 나.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18.3.20.)

### (1) 개요

3월 5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대통령 특별사절단은 북측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으로 초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측은 3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3월 19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회담 일자를 3월 20일로 수정 제의하였다. 이에 북측이 동의하면서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이윤상(용인대학교 교수)	현송월(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대표	박형일(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박진원(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안정호(삼지연 예술단 무대감독) 김순호(삼지연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 (2) 진행경과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공연 일정 및 규모, 공연 프로그램, 예술단 취재 및 방송, 사전 점검단 파견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면서 이번 공연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분위기를 세워나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측은 공연과 관련하여 예술단의 명칭과 인원 구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문의하고 공연일정,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한 북측 의견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공연단 방북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단독공연 장소는 동평양대극장을, 합동공연 장소로는 류경정주영체육관을 추천하였다. 이 밖에 공연과 관련하여 설비기재, 무대배경·편성·내부전광판, 곡목 및 가사, 삼지연 관현악단과의 합동공연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사전점검단 및 숙박·편의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18.3.20.)〉

양측은 전체회의 2회와 대표 접촉 4회를 통해 상호 입장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공연장소, 편의제공, 요구사항 확인 등 남측 평양 공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평양 방문 예술단의 규모를 160여 명으로 하고, 단독공연은 동평양대극장(4.1), 합동공연 장소는 류경정주영체육관(4.3.)에서 각각 1회씩 2차례 공연을 하기로 하였다. 남측 사전점검단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공동보도문(3.20.) 요지〉

- 남측은 16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함.  
-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함.
- 남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남측 사전점검단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도록 함.
- 기타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도록 함.

동 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이 단독공연(4.1., 동평양대극장)과 남북합동공연(4.3., 류경정주영체육관)으로 진행되었고, 4월 5일 지상파 3사(KBS, SBS, MBC)에서 방송되었다. 또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도 단독공연(4.1., 태권도 전당)과 남북합동공연(4.2., 평양대극장)으로 진행되었다.

## 4.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18.11.7.)

### 가. 개요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후 10월 15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분과 회담을 10월 하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0월 18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 통지문을 통

해 10월 24일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였다. 북측은 11월 2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개최 일자를 11월 7일로 수정하여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보건의료회담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측	북측
수석대표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박명수(보건성 국가위생감염원장)
대표	김병대(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권준욱(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박동철(보건성 부국장) 박철진(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 나. 진행경과

남과 북은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함을 표시하고, 상호간 전염병 정보교환, 표준검역절차 확립, 상대측 지역 방문인원의 검역방법과 환자격리·후송·진단·치료 등에 입장을 같이하였다.

우리측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교환 연내 시범 실시 및 공동 대응 등에 대한 협력의사를 표명하였고, 시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 및약품 지원을 제안하였다.

북측은 전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방역 체계 구축,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검역절차 확립 및 공동대응, 상호간 방문 인원에 대한 검사검역 및 전염병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남북 보건의료분과회담(‘18.11.7.)〉

양측은 전체회의와 2차례 대표접촉을 거쳐 당해 연도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 〈공동보도문(11.7.) 요지〉

-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
- 남과 북은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함.
- 남과 북은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함.

동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같은 해 12월 12일 개성에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였다.

## 부록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 1.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북남대화과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 언급</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최선'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나갈 것' 언급(국무회의 모두발언)</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4차 핵실험</li> <li>정부, 4차 핵실험 '강력 규탄, 핵 포기 촉구' 성명(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국방장관, 4차 핵실험 '명백한 국제법 위반',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합의(공동언론발표문)</li>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동 및 안보리 의장국 언론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li> <li>△"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군,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li> <li>국회,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촉구</li> </ul> </li> <li>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작</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위원장, '수소탄 실험 성공' 핵과학자 표창장 수여</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잠정 중단 발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핵실험이 자위적 조치' '핵능력 지속 강화' 주장</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 지시(외교안보부처 연두업무보고)</li> </ul>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위성 발사 계획 통보</li> <li>* "2.8.~25. 광명성 평양기준 07:00~12:00경 발사" 통보</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관련 성명(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통보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북한은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li> </ul> </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 홍보수석,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통보 관련 대통령 입장 발표(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 △강력한 유엔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함.</li> </ul> </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미사일 발사 기간을 7~14일로 변경 통보</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 발사</li> <li>우리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 계속</li> </ul> </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주한미군 THAAD(사드) 배치 공식 협의의 시작 발표(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 하였음. △사드체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임.</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로켓발사 강력 규탄 성명 채택</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li> <li>•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 발표(통일부장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방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음 △정부의 개성공단 유지 노력은 북 핵·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됨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함.</li> </ul> </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개성공단 폐쇄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자산 전면 동결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북측 근로자 개성공단 철수 등 조치</li> </ul> </li> <li>• 개성공단 체류 인원 280명 전원 귀환</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입장)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북한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 △북한이 우리 국민의 재산을 훼손해서는 안됨을 엄중 경고 △범정부적 차원의 입주기업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li> <li>- (지원 대책) △대출기업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경협보험 가입 기업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및 민간은행 금리인하·만기연장 협조 요청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유예 △입주기업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li> </ul> </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 언급(국정에 관한 국회연설)</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 위협</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청와대 타격 위협 관련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 경고</li> </ul>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 강조 (3.1절 기념사)</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인권법 국회 통과</li>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대북제재 결의 2270호)</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미사일 6발 발사</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유엔 대북제재 관련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 총동원' 위협</li>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관련 '병진노선 관철' 강조</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중대도발' 주장</li>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3.4.) 관련 '북한에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설 것'과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위협 중단' 촉구</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KR/FE 한미연합훈련 관련 '침략적 성격을 드러낸 전쟁행위'라고 주장</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KR/FE 연합훈련 시작(3.7.~4.30.)</li> <li>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KR/FE 한미연합훈련 관련 '총공세 진입' '통일성전으로 민족 최대 숙원 성취' 위협</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대변인,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3.7)관련 '스스로 파멸로 가는 경거망동 즉각 중단' 경고</li> <li>박근혜 대통령,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관련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한 노력' '북 도발 시 응분의 대가' 언급(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KR/FE 한미연합훈련 관련 전면대응 조치와 핵폭탄의 보복 세례' 위협</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무조정실장,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 대폭 강화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 강화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li> </ul> </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와대 대변인, 북 스마트폰 해킹 관련 '국민 안위에 직결되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 '북 사이버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강조(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황해남도에서 원산 동북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에 맞서 '남북간 모든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합의 무효'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자산 청산' 발표</li>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남측 자산 청산' 담화(3.10.) 관련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 엄중 경고</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군 총참모부,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적 대응조치' 경고</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 '북한동포의 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음'을 언급(청와대 국무 회의)</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정부·정당·단체 성명, 한미 해병대 훈련 관련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시적인 선제타격 전에 돌입" 경고</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평남 속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함경남도 함흥 남쪽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5발 발사</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 우리 공군의 북한 군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론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li>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3.23.)를 통한 국가원수에 대한 비난 및 위협에 대해 강력 경고</li> <li>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 모색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 설치</li> </ul> </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3.23.) 관련 전국 경계태세 강화 지시</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 남한의 천안함 폭침 6주기 추모행사 비난</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양강도 방향 내륙으로 단거리 발사체 1발 발사</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li> <li>한미정상회담,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 재확인</li> <li>한·미·일 정상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 재확인(언론발표문)</li> <li>한일정상회담,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대북 압박 공조 방안 논의</li> <li>한중정상회담,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등 협의</li> <li>북한, 군사분계선 북방에서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 최대 출력 발사</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대북 경고 성명 발표, GPS 교란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 즉각 중단 엄중 경고(국방부 대변인)</li> <li>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3발 발사</li> <li>북한 적십사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언급을 '반북대결정책 합리화' 비난, '박근혜 대통령 재직 중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는 없음'을 천명</li>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 '인도적 교류 중단' 일방 선언(4.1.) 강력 규탄</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국방위 대변인 담화, 미국과 유엔 등의 초강도 대북제재는 북한을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미국이 '자주권 침해 시 무서운 징벌' 주장</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북 서울 주요기관 시설 타격 위협 영상(4.5.) 공개에 대해 엄중 경고</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제기 핵문제 발언 비난</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4.7.) 관련 '강력 경고' 및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담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4.7.) 관련 '집단 납치 행위' '인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초래될 엄중한 후과' 경고</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1발 시험 발사</li>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안보리 결의 위반', '추가 도발 때 중대한 조치' 경고</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4.7.) 관련 '중대입장' 천명 및 '송환 거부 시 참담한 대가' 위협</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4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상, ‘한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유엔본부 「2030 지속가능개발 목표 고위급회의」 회원국 대표 연설)</li> <li>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관련 가족대면을 요구하며 송환 불응 시 청와대 등에 복수 거론</li> <li>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성명(4.21.) 관련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20대 총선 이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리수용 북 외무상 인터뷰,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 경우 핵 실험 중지할 준비 언급(AP통신)</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4.23.)를 안보리 결의 위반, 추가 도발 자제 촉구</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문답, SL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채택 관련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언급(조선중앙통신사)</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원산 지역에서 미사일 오전·오후 각 1발 발사</li> <li>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래가 없을 것임을 언급(국가안전보장회의)</li> <li>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외교장관 회의,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핵 폐기 촉구 공식 문서 채택(CICA 외교장관회의 선언문)</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북한 식당 집단탈북 종업원들의 “즉시 송환 외면 시 청와대 등 겨냥한 무자비한 천백배의 대응 개시” 위협</li> <li>북한 적십자회, 집단탈북 북한식당 종업원 송환 요구 통지문(북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대한적십자사 총재 앞)</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4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최근 판문점에서 '미제 침략군 측 도발행위가 심해지고 있다'며 '도발광기를 더 이상 부려대지 말아야한다'고 주장</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한미연합훈련 종료 관련 '①핵을 두고 더는 판 꿈을 꾸지 말 것 ②제재와 봉쇄의 효과에 대해 망상 하지 말 것 ③우리와의 대결에 매달릴수록 차레질 것이란 패배자의 오명과 수치뿐' 주장</li>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자위적 조치 대응은 불가침 권리', '9.19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되었다' 주장</li>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경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논의(북 5차 핵실험 임박, 추가핵실험 강행될 경우 미래가 없게 될 것 등) 관련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 인민에 대한 모독이고 정치적 도발' 주장</li> <li>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경고(4.30.) 관련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위협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li> </ul>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미 핵위협이 계속될수록 '핵억제력의 타격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 주장</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5.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 및 '핵보유국' 지위 주장</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관련 '진정성 있는 변화 보여주지 못하였다'고 평가, '핵보유국 선언' 비판(국무회의)</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사전통보 없이 두 차례(5.16., 5.17.)에 걸쳐 황강댐 방류</li> <li>북한 정부·정당·단체 공동성명,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 제7차 대회 제시 통일노선과 방침은 '민족통일대강' 주장, 지지 호소 및 '남한 당국이 민족대단결의 방도를 내놓는다면 함께 추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주장</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북한 공동성명(5.16.)에 대해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피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임진강 수계 댐 방류 관련 합의 무시, 무단 방류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촉구</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li> <li>북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5.20.)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li> </ul> </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김기남 당 부위원장 담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li> <li>북한 인민무력부,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말 또는 6월초에 가지자고 제의(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대한민국 국방부 앞 통지문)</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대한 입장 표명 요구(대한민국 국방부→북 국방위 인민무력부 통지문)</li> <li>북한 주 유엔 상임대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며 ‘견해 요청’ 서신 발송(유엔 사무총장 앞)</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인민무력부,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5월말 또는 6월초에 가지자고 재차 제의(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대한민국 국방부 앞 통지문)</li> <li>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담화, ‘민족 대단결’, ‘남북 각 정당·단체 간 접촉과 왕래, 연대연합을 통해 화해·단합의 분위기 마련’ 주장</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서해 NLL 침범 북 단속정과 어선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5.27.)에 대해 '계획적 군사 도발' 비난, '인민군 서남전선부대들은 보복 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동참모본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5.27.) 관련 북한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합동참모본부 입장자료)</li> <li>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우리 군의 경고사격(5.27.)에 대해 '청와대의 계획적인 책동' "이 시각부터 아군(북)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 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함정들에 대해 경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할 것" 경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원산에서 미사일 1발 발사</li> </ul>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우리의 남북군사회담 제의 거부에 대해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 경고</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6.2.) 관련 대남 위협에 유감 표명</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통일대화합' 개최 제안(6.9.)에 대해 '기만적 통일전선 공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6.15 공동선언 관련 입장 발표(대변인 정레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핵 개발은 그동안 체결된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기 △북한에 도발·위협 중단 및 핵포기를 통한 남북관계 실질적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 진전의 길로 나와야 함</li> </ul> </li> <li>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7차대회에서 제시한 통일노선과 방침 관철을 위한 대책 토의 △민족대단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갈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남측 정당들에 보내기로 결정</li> </ul> </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유엔사무국에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6.9.)에서 채택된 편지 전달</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대변인,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발표 - 총 130개 품목(△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li>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6.22.) 논의(국가안보실장 주재)</li> <li>외교부 대변인 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6.22.)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6.22.) 규탄 언론 성명 채택</li> <li>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 탄도미사일 발사(6.22.)를 ‘핵탄두 운반수단의 성공’,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언급</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우리 정부의 6.15 공동선언 관련 입장(6.13.)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고 반복정책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기본정신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조선중앙통신)</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탈북종업원들 법정출석 거부 관련 신상공개, 가족들 면담 실현, 송환 요구</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 연석회의 제의 공개편지(6.27.) 관련 ‘진정성 없는 통일전선 공세’로 규정,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4차 회의 진행(평양)</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핵선제공격태세 완성(핵보유, 무수단 발사 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은 공정성·적법성·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조선중앙통신)</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황강댐 무단방류</li> <li>통일부 대변인,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황강댐 방류와 같은 작은 협력도 기꺼이 해야 할 것임을 강조</li> <li>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한미의 '북핵포기 주장 절대 수용 불가', '조선반도 전역 비핵화' 요구 조건 제시</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미국의 김정은 인권제재 대상 발표(7.6.) 관련 '무조건 철회' 요구, '북미간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 차단' '초강경 대응 조치' 위협</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THAAD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공식 발표</li> <li>통일부 대변인,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7.7.) 관련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음을 강조</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강력히 규탄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사드 배치 관련 대남·대미 중대경고</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대통령 실명 비난</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7.14.) 관련 북한의 우리 국가 원수 비방 및 우리 사회 분열 목적의 비방·중상을 강력 규탄</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li> <li>국방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7.19)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에게 중대한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 도발적 행위' 규탄</li> </ul>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li> <li>외교부 대변인 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8.3)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당국에 올바른 태도변화를 촉구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통일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8.16.) 관련 북한의 핵 참화 위협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규탄, 즉각 중단 촉구</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FG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항시적 결전태세 견지 △침략징후 포착 시 핵 선제타격 위협 ('위임에 따른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 천명' 주장)</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근혜 대통령, 북한 도발에 만반의 대비 태세 지시(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li> <li>UFG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8.22.~9.2.)</li> <li>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집단 귀순 북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촉구 대남 편지 발송(대한적십자사 앞)</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8.25합의' 1주년 계기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책임 전가</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시험발사</li>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규탄</li> <li>• 통일부,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8.23.) 관련 ‘핵 개발과 대남도발을 중단하고 올바르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 (7~8월)에 대해 규탄 언론성명 채택</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무장, 판문점 북측 감시초소에 투광등을 비춘 것 관련 “고의적인 도발행위” “조준 사격을 면치 못할 것” 경고</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8.26.) 관련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모든 사변적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 이라고 경고</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관련 정부와 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 및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 당부(수석비서관회의)</li> <li>•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각종 기관·단체를 동원한 대통령 비방에 대해 즉각 중단 강력 경고</li> </ul>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황해북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 발사</li>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9.5.)에 대해 규탄</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 유지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소통 지속 등에 합의</li> <l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9.5.)에 대해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안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li> <li>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9.7.) 관련 한반도 긴장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할 것임을 지적하고 비핵화와 민생을 먼저 살피는 올바른 선택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li> <li>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남북한과 해외 청년들이 참가하는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해내의 전체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조선청년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9.7.) 관련 ‘통일전선 공세’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국제사회의 올바른 성원으로 나오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부터 보일 것’을 촉구</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제5차 핵실험 실시</li> <li>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언급(북한 5차 핵실험 관련 긴급대책회의)</li> <li>국무총리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및 정부성명 발표 (국가안보실 1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차 핵실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강력 규탄함.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li> </ul> </li> <li>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 성명,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해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시 착수 발표</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대통령 발언 및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 계획에 대해 대통령 비난 및 ‘서울 불바다’ 위협</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 대응 협의</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선중앙통신, 신형 정지위성 운반용 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 '대성공' 보도</li>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비난 및 "강력한 대응조치를 다발적·연발적으로 계속 취해 나갈 것" 경고(조선중앙통신)</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부장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행동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함을 강조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축사)</li> <li>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미 장거리 전략폭격기 비행 (9.21.) 관련 "북 핵탄은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 위협</li> <li>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한 재난을 우리 정부가 '대결모략'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부, 북한이 '서울 잿더미' 운운은 '적반하장, 언행 즉각 중단' 경고(국방부 입장자료)</li> <li>통일부 대변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9.22.) 관련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선전을 통해 외부 지원을 끌어내려는 이중적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반박</li> <li>북한 리용호 외무상,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 및 대미 비난(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원자력기구, 제60차 총회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 만장일치 채택</li> <li>국방부, 사드 배치 부지 확정 발표(보도자료)</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근혜 대통령, 북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을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이 초래 경고(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노동신문,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비난(정세논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노동신문의 대통령 기념사 비난(10.3.)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평안북도 구성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1발 발사</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미사일 1발 발사</li> <li>•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 규탄</li> </ul>
1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가서명 관련 '반민족적 범죄행위' 비난</li> <li>• 유엔 주재 북 상임대표부 공보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11.15.)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발·배격 주장</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의 5차 핵실험(9.9.)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신규 제재 추가 및 기존 제재규정 강화(의무화 및 예외 삭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최초 경고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주의 촉구</li> </ul> </li> </ul>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11.30.) 비난</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명,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11.30.) 비난</li> </ul>

2016년

월	일	주요 일지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2321호) 후속조치로 독자 대북제재 발표(국무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제재대상 신규 추가(개인 36명과 단체 35곳) △해운 통제(북한 기항 외국선박 국내입항 금지기간 180일→1년 확장) △수출입 통제(북한산 의류 임가공품 국내반입 차단 강화, 집중관리 대상 품목 11개 광물 추가, 잠수함 분야 감시대상 품목 목록 작성) △출입국 제한(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인 외국인 입국 금지, 국내 거주 핵·미사일 관련 전문가 방북 시 국익위해 행위 때 국내 재입국 금지)</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장관, 국제사회에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 강조(IAEA 핵안보 회의 개막연설)</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남북 이산가족 문제 조속 해결 촉구 보고서(12.7.)」 배격, 북한 식당 여종업원 납치 주장(조선중앙통신)</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유엔 북한 대표부 긴급기자회견,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주장</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군, 신형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대 설치</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12.20.) 관련 ‘도발책동’ 비난, ‘병진노선 고수·핵무력 질량적 강화’ 언급(조선중앙통신)</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li> <li>• 통일부 대변인 논평,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는 주장(1.1.) 강력 규탄,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 언급(조선중앙통신)</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북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성명(1.12.)에서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li> </ul>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관련 대남 위협,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에 '심사숙고'할 것 요구</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2.1.)에 대해 연계적 한미 방어훈련 왜곡, 대남 위협 규탄</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 외교부 성명,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남 피살(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대변인 논평, '여러 정황상 피살자는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 발표</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한 주민(김정남)은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 이라며 '북한의 배후조종' 부인</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2	23	• 통일부 대변인, 김정남 사망이 우리 정부의 모략이라는 북한 주장(2.23.) 관련 '역지주장'이라고 일축
	28	• UN군축회의의 참석 북한 대표, 화학무기 보유·사용을 부인,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스위스 제네바)
3	1	• 한미연합훈련 개시(3.1.~4.30.) • 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초강경 대응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
	2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정례브리핑, 북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3.1.) 관련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경우 주저 없이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강조
	3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대통령 비난 및 투쟁 선동
	5	• 통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3.3.) 관련 국내 정치 개입 행위라고 규탄(통일부 입장자료)
	6	•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외교부 대변인)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3.6.)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 강력 규탄
	19	• 북한 조선중앙통신,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 실시 공개
	26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한미연합훈련에 미국 특수부대 투입 관련 반발·위협
4	1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대학 입학 관련 대남 비난 및 송환 요구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납치극' 주장(4.1.) 관련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 강제납치라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 미사일 발사(4.5.)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지적</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남북경기 개최(강릉)</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여자축구 아시안컵 예선 남북경기 개최(평양)</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주한 미군기지 및 청와대 등 '초토화' 위협</li> <li>합동참모본부, 북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4.14.) 관련, '도발을 자행한다면 한미 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으로 북한 정권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 경고(입장자료)</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외교부 대변인 논평,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라고 비난, 고강도 전략도발 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 경고</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화력훈련 진행</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li>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 탄도미사일 발사(4.29.)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li> <li>합동참모본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리 군의 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지속적 도발 행위에 대해 거듭 강력 경고, 도발을 계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li> </ul> </li> </ul>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보도(조선중앙방송 등)</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외교부 대변인이 발표)</li> <li>- △북 탄도미사일 발사(5.14.) 강력 규탄 △북한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li> <li>•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북 탄도미사일 발사(5.14.) 관련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북한대사관 외신 기자회견,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남북 합의의 존중과 철저한 이행' 강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병진 노선을 관철하는 정상적인 공정' 주장</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정부 대응 비난</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조선중앙통신, 고체연료 지대지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li> <li>• 외교부 대변인 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5.29.)를 강력 규탄하고 일체의 도발 중단 및 조속한 비핵화를 촉구</li> <li>• 합동참모본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 발표 (입장자료)</li> <li>-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li> </ul>
	6	7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6	8	• 북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추정 4발 발사
	14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6.15공동선언 17주년 계기 우리 정부에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
	15	• 문재인 대통령, 역대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밝히고,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실천한다면 적극 도울 것임을 언급(김대중평화센터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23	• ITF 태권도 시범단 방남(6.23.~7.1.,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24	•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여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등 언급(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축사)
	28	• 북한 국가보위성·인민보안성·중앙검찰소 연합성명, 남한 이전 정부가 '최고수뇌부를 해칠 계획을 추진했다'고 주장, '극형 선포' 위협 • 국가정보원, '우리 국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7	4	• 북한,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외교부 성명, 북 탄도미사일 발사(7.4.)를 강력 규탄하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6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 (5대기준) △당장의 통일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비정치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지속 - (대북제안) △10.4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올림픽' 실현 △7.27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7.11., 7.15.)</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적십자사,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8.1.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대북 제의(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발표)</li> <li>국방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7.21. 판문점 통일각에서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국방부 차관 발표)</li> <li>통일부장관, '베를린 구상' 관련 우리측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문)</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자강도 무령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 1발 발사</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 성명,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7.28.)를 강력 규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의 대북제안에 호응 촉구</li> <li>국방부장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7.28.)를 강력 규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단호한 조치 경고</li> </ul>
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안보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7.4., 7.28.)에 대응하여 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정부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8.5.)를 '미 압살책동의 산물', '자주권 침해', '정면 도전'이라며 '전면 배격', '천백배로 결산' 위협</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 비난, '군사적 대응' 발표</li> <li>미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미국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화성-12형 4발 동시발사로 '깜 포위 사격 방안 검토' 발표</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8	10	• 합동참모본부 성명,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대남·대미 위협에 대해 대북 규탄
	15	•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21	•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실시(8.21.~31.)
	22	•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 을지프리덤가디언(UFG)를 '침략전쟁'이라고 비난
	26	• 북한,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29	•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성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및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
	30	• UN 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
	9	3
11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로 채택
13		• 북한 외무성,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라는 입장 표명
15		•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외교부 성명, 북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및 조속히 비핵화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
16		• 북한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성-12형' 발사 명령 및 훈련 참관 공개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담화, '제재압박 책동에 매여 달릴수록 국가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으로 질주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 경고(UN총회 기조연설)</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 경고</li> <li>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며, 안정적인 상황 관리의 중요성과 UN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을 강조(UN총회 기조연설)</li> <li>미 트럼프 대통령, 북한과 거래 금융기관 제재대상 포함 행정명령 서명</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리용호 외무상,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언급된 '초강경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태평양 상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 것"이라고 언급(기자회견)</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리용호 외무상,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지도부 참수나 군사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UN총회 연설)</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10.4선언 중 많은 것이 지금도 이행 가능"하며 "남북이 함께 10.4선언이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10.4선언 10주년 기념사)</li> </ul>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북침전쟁연습반대 전민족위 대변인 담화,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관련 '초강경 조치' 위협</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리용호 외무상, '미국과 힘의 균형 도달', '핵무기 협상 대상 불가', '중국·러시아 제안 로드맵 구상 수용 불가' 입장 표명(러 타스통신 대표단 면담)</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대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치위성을 비롯한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언급(UN총회 제4위원회)</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최선희 외무성 국장, “미국이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한 조선의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10.21., 러 국제핵비확산회의)</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동해에서 우리 어선 ‘홍진호’ 나포</li> <li>북한 UN대사, ‘한미연합해상훈련(10.16.~20.) 안보리 긴급의제로 채택 요구’ 서한 발송(조선중앙통신 보도)</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생사 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 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다”고 언급(제35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축사)</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하원, ‘오토 웹비어 북핵재재법(H.R.3898)’ 통과</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선중앙통신, ‘홍진호’ 및 선원 송환 계획 보도 * 18:30 동해상 송환</li> <li>UN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분야), 북 핵실험 규탄 결의 3건 채택</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백 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제18기 민주평통 전체회의 개회사)</li> </ul>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 5대 원칙’ 표명(국회 시정연설) -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 없으며, 북 도발 중단이 우선이라고 언급(싱가포르 CNA 인터뷰)</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북 추가도발 시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북 올바른 길 선택 시 밝은 미래 제공</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에 북 압박 동참 촉구 및 북과의 대화 조건(공격 종료, 미사일 개발 중단, 총체적 비핵화) 제시(대한민국 국회 연설)</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관련) “우리 국가를 악마화한 것”이라며 “핵무력 건설 대업 완성에로 더 빨리 질주할 것”이라고 주장</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군 1명(오청성) JSA에서 귀순, 총상으로 병원 후송</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7일 뒤까지 (18.2.2~3.25) UN 현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li> </ul> </li> <li>• 통일부 대변인, (UN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 관련) “북한이 조속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확정 짓고, 남북이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li> <li>• 외교부 대변인 논평, UN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북 인권 개선 조치 촉구</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트럼프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책자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li> <li>-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li> <li>- (5대 원칙)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증시</li> </ul> </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군사령부, JSA 북한군 귀순 사건(11.13.) 조사 결과 발표</li> <li>-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총격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 월선 등 두 차례 정전협정 위반 사실 발표, 북한군에 통보 및 대책 회의 요청</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평남 평성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li> <li>정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외교부 대변인 발표)</li> <li>- △북한의 도발 강력 규탄 △핵·미사일 개발 포기 및 추가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li> <li>북한, 화성-15형 발사 성공, '국가핵무력 완성' 정부 성명 발표</li> <li>UN 안보리, 북 미사일 관련 긴급회의 개최</li> </ul>
1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한·미공중연합훈련(12.4.~8.) 관련 '핵선제공격의 구실 마련', '핵전쟁의 전주곡' 등 비난</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공중연합훈련 Vigilant ACE 진행(12.4~8.)</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화성-15형 발사(11.29.) 대응 추가 독자 대북제재</li> <li>- 북 금융기관·선박회사 등 20개 단체, 개인 12명 추가 지정</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자성남 주 UN대사,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NHK 보도)</li> <li>미 틸러슨 국무장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 발언 (애틀랜틱 카운슬·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토론회 기조연설)</li> <li>미 백악관 대변인 성명, (틸러슨 발언 관련)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li> </ul>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체육교류협회 주관,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최(~12.22., 중국 쿤밍)</li> </ul>

2017년

월	일	주요 일지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언급(NBC 인터뷰)</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놓여있다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언급</li> </ul> </li> <li>청와대 대변인 논평,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 표명</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명균 통일부장관,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제의(언론 공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 문제 협의 위해 1.9.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li> </ul> </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 3일 15시 남북 간 판문점 연락통로 개통 및 평창 동계올림픽 실무적 문제 논의 입장 발표(조선중앙TV)</li> <li>15:30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 재가동 * '16.2.12. 중단된 지 1년 11개월 만에 복원</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정상 통화,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서해 군통신선 복원 사실 공개 * 우리측은 14시경 유선통신 연결 확인</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 공고화 목표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li> </ul> </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1	20	• IOC, 바흐 위원장 주재 남·북 민족올림픽위원회(NOC) 및 평창 동계 올림픽조직위 4자 협의 개최 및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21	•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예술단 사전 점검단 파견(~1.22.)
	23	• 정부, 금강산 문화행사 및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관련 선발대 북 파견(~25)
	25	•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점검단(~1.27.) 및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경의선 육로 파견
	29	• 북한 조평통 위원장,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2.4. 예정) 취소 통보
	30	• 통일부 장관, 북측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통보(1.29.)에 대한 유감 표명
	31	• 남북,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실시(~2.1.)
2	1	• 북한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 선수단 32명 방남
	2	• 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향후 지속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길 희망, 미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람.” (한미 정상 통화)
	4	• 북한 장웅 IOC 위원, IOC 총회 및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차 방남 (~2.18.)
	5	• 문재인 대통령,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IOC 총회 개회식 축사) •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 방남
	6	•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예술단 본진 114명 방남 (~2.12.) - △2.8. 강릉아트센터 △2.11. 서울국립중앙극장 공연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김일국 체육상 등 민족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280명 방남</li> <li>국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문' 채택</li> <li>정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 관련 제재 면제 요청</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북 고위급 대표단 방남 관련 제재 예외 인정</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성 만월대 평창특별전 개막(2.9.~3.18., 평창 상지대관령고)</li> <li>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참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2.11.)</li> <li>남북 선수단,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동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깃발) 한반도기 △(공동기수) 남 원윤종, 북 황충금 △(음악) 아리랑</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면담 및 오찬(청와대)</li> <li>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조별 예선 1차전(대 스위스) 경기 공동 관전(강릉 관동하키센터)</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가 북한 고위급 대표단 8명 방남(~2.27.)</li> <li>문재인 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 접견(평창)</li> <li>문재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NOC)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기자단 등 299명 귀환</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갈 것",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 언급(3.1절 기념사)</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3.6)</li> <li>•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접견(3.6 조선중앙통신 보도)</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24명 방남(~7.15.)</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4.1 한미연합군사훈련 '예년 유사 규모' 진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수리훈련(FE) 4.1부터 한 달간, 키리졸브(KR) 4.23부터 2주간 △유엔사, 북에 훈련 일정·방어적 성격 등 통보</li> </ul> </li> <li>• 우리측 예술단 평양공연 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중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은 북한의 변치 않는 입장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호응하여 평화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동시에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등 언급(3.28 中 CCTV 보도)</li> </ul> </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공연 본진 120명 방북(~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 공연 △단독공연(4.1., 동평양대극장) △남북합동공연(4.3., 류경정주영체육관)</li> <li>- 시범단 공연 △단독공연(4.1., 태권도전당) △남북합동공연(4.2., 평양대극장)</li> </ul> </li> </ul>
	4	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1차 통신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국무위원장, 당 정치국 회의 주재</li> <li>- 남북정상회담 일정(4.27., 판문점 평화의집) 공표 및 북미회담 거론</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차 통신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2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개통 및 시범통화 실시</li> <li>북한, 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실시</li> <li>- △경제·핵 병진노선 승리 및 핵무기 병기화 실현 천명 △4.21부터 핵, ICBM 시험 중지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천명 △평화·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대화</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4.23 0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발표</li> <li>- 북, 정부의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남 확성기방송 대부분 중단</li> <li>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3차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판문점 평화의집)</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남북 표준시 통일을 위해 5.5일부터 30분 앞당긴 표준시 적용” 발표</li> </ul>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 대북확성기 철거(~5.4.)</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5.8., 중국 다롄)</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국무위원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접견(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대안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 및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에 사의 표명</li> <li>- 북미정상회담 관련 만족한 합의, 미국인 억류자 석방·송환 문제 논의</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트럼프 대통령, 송환된 미국인 억류자 3명 공항 마중 및 북미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개최 발표</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썬더(Max Thunder) 실시(~5.25.)</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외무성 공보, 5.23~25 북부 핵실험장 폐기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깡도 폭발·붕락 및 입구 폐쇄, 관측설비 및 구조물 철거 등 순차적 방식 진행”</li> <li>-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제기자단(중·러·미·영·남조선) 현지 취재 허용”</li> </ul> </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단장, 한미연합공중훈련 이유로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 통보(대남 통지문)</li> <li>• 통일부 대변인 성명, 북측 무기 연기 통보는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유감” 표명</li> <li>• 북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미국이 일방적 핵포기만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입장 발표</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 정권과 마주 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조선중앙통신 문답)</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정상회담(백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정상회담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 최근 북한 태도 평가, 완전한 비핵화 천명 후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 등 논의</li> </ul> </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기자단(MBC·뉴스1 각 4명),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 차 방북</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펜스 부통령의 리비아 발언 비난,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북미정상회담 “재고려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 언급</li> <li>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국제 기자단에 공개</li> <li>외교부 대변인 논평, 북 핵실험장 폐기 환영 입장 표명</li> <li>미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김정은 위원장 앞 공개서한)</li> <li>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상간 직접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 발표</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유감 표명,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기자회견)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 (북한 중앙통신 보도) “조미 수뇌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 진행”</li> </ul> </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제네바 대표부,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촉구(공보문 발표)</li> <li>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방문(~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 트럼프 대통령 접견 및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li> </ul> </li> </ul>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찬성표 행사로 가입 조건인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 충족</li> </ul> </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시설점검 차 개성공단 방문</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6	10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싱가포르 도착 및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12	• 북미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센토사 섬), 4개항 공동성명 채택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공동 노력 △「판문점 선언」 재확인,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확약△미 전쟁포로·전사자 유해 발굴 및 송환
	14	•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18	• 남북체육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19	• 한미, 8월 실시 예정이었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유예 결정 발표 (국방부 성명) •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보수공사 준비인력을 개성공단에 출퇴근 형식으로 파견(~6.22.) •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6.20., 베이징)
	22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한미, 7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유예 발표
	25	•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통신실무접촉 개최(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26	•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27	• 정부,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점검단 금강산 파견 (~6.29.)
	28	•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남·북·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2018 아시안게임 3개 종목(카누, 조정,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	1	•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 * '08년 5월 중단된 이후 10여년 만에 복원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7	3	•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7.6., 평양)
	4	•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6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7.7.) - 7.12부터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미사일 엔진 시설 파괴 논의 (평양 순안국제공항 출발 시 기자회견)
	7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시 미측 태도에 대해 유감 표시 - “미국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미 언급”
	10	• 정부, 8월 예정 을지연습 잠정 유예 발표
	15	• 북미, 미군 유해송환 장성급회담 개최(판문점) • 북한 선수단,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대회 코리아오픈(7.17.~22. 대전) 참가 차 방남
	16	• 서해 군통신선 임시 복구
	20	• 남북, 동해선 북측 연결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실무협의
	24	• 남북, 경의선 북측 연결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 공동점검 및 남북 철도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개최
	27	• 북한, 미군 유해 55구 송환(원산)
8	29	• 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종목(카누, 조정, 농구) 북한 선수단 34명 방남
	31	•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1	• 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트위터 공개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리용호 외무상, 비핵화 “동시 행동, 단계적 방식” 주장(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연설, 싱가포르)</li> <li>미국,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답신 전달(ARF 외교장관회의)</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산림병해충 피해 공동점검(금강산)</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철도 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석인원 방북(~8.19.)</li> <li>북한 노동자 축구대표단 방남(~8.12., 서울)</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li>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 개최(개성) 및 경의선 도로(개성-평양) 현지 공동조사 착수(~8.20.)</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 통일경제특구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언급(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li> <li>남북, 동해 군통신선 연결 및 시험통화 성공</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아시안게임 개최식 공동입장(인도네시아 자카르타)</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8.26., 금강산)</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9.5 대통령 특사 파견을 북한에 제안(대북 통지문)</li> <li>북한, 9.5 대통령 특사 파견에 동의</li> </ul>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특사단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및 대통령 친서 전달</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재개 관련 실무협의(개성)</li> <li>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요청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9.14., 판문점 통일각)</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li> <li>•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개성)</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방북</li> </u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9.18.~20., 평양),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li> <li>• 국회의장, 북한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 측에 남북국회회담 제안 친서 발송</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유도 세계선수권대회 공동 출전(~9.27., 아제르바이잔 바투)</li> </ul>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우리 국회의장 측에 국회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 동의한다는 답신 전달</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리용호 외무상,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 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언급(UN 총회 연설)</li> </ul>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JSA 및 유해 발굴 시범지역 내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 개시</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 면담 및 오찬(평양), 이후 문재인 대통령 예방(서울)</li> <li>- △2차 북미정상회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 △북 비핵화 조치들과 미 정부의 참관 문제 및 상응조치 협의(청와대 서면 브리핑)</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군사실무접촉(판문점 군정위 회의실)</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li> <li>•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이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면담(스위스 제네바)</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판문점 자유의집)</li> <li>- 10.1부터 진행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제거 작업 추진상황 점검,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 장비 조정 등 향후 조치에 대한 실무 문제 협의</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10	19	• 국회,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대북 제의(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	• 북한, 남북국회회담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추후 개최 입장 전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2	•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개최(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판문점 자유의집)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 작업 공식 완료 확인·평가 △10.25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초소 철수 및 이후 2일간 3자 공동검증 실시에 합의 △경계근무 인원 조정 및 공동 검증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 협의
	25	•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북 선수단 참가차 방남 (~11.3., 춘천·인제)
	26	•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26	• JSA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10.27.)
	29	•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한·미 간 워킹 그룹 구성 합의 (~10.30.)
	30	•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단 및 시범단, 태권도 시범공연차 방북 (~11.3., 평양)
	11	1
2		• 남북체육분과회담 개최(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4		• 남북한, 시범철수 대상 GP 각 11곳을 명확히 식별·검증하기 위해 모든 시범철수 GP에 황색기 게양, 시범철수 절차 개시
5		• 남북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 개시
6		•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판문점 자유의집)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 근무수칙 마련 합의, 새로 설치된 경계초소 확인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개최(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li> <li>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발표</li> <li>미 트럼프 대통령,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 관련, 차기 북미정상 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 언급</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 시범철수 GP 화기·장비·병력 철수 완료</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북측에 송이버섯 선물 답례로 제주산 굴 200톤 전달(~11.11.)</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도로 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 개최(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li> </ul>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항공실무회의 개최, 남북 간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 문제 논의(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li> <li>북한 조선중앙통신, 억류 미 국적자 1명 추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과 스웨덴 대사관에 대해 석방 협력 감사 성명</li> </ul> </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방식으로 제거</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통신실무회담 개최(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철도 현지조사 제재 면제 승인</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북에 전달 및 공동방제 실시(개성)</li> <li>정부, 서해지구 군 통신선 유지 관련 물품 북측에 제공</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의선 철도 현지조사 실시(~12.5., 개성~신의주)</li> <li>남북한, 시범철수 GP 시설물 완전 파괴 완료</li> <li>한미정상회담 개최(부에노스아이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 제재 유지가 중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에 추가적 모멘텀 제공</li> </ul> </li> </ul>

2018년

월	일	주요 일지
12	8	• 남북한,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 실시(~12.17.)
	9	• 한강하구 공동조사 종료
	10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종료
	11	• 남북산림협력 남측 현장방문단, 평양 현장 방문(~11.13.) - △11.29 제공한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분배 확인 △북 양묘장 및 산림기자재 공장 방문 △향후 남북산림협력 추진방향 관련 실무협의 등 진행 •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12. 13.~16., 인천) 참가 차 북 선수단 방남(~12.17.)
	12	• 남북보건의료실무회의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시범철수 GP 남북 공동검증
	13	• 철도·도로 착공식 관련 남북실무회의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	• 남북체육분과회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1	•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12.23., 고성~원산 구간, 약 100km)
	24	•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개성지역, 약 4km)
	26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개성 판문역)
	28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감염병(홍역) 발생 정보 대북 통보
	30	• 북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 올해 서울 방문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 표명, 2019년 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 진척,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 표명(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 9월 평양공동선언(9.19)

### □ 정치분야 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1.9)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3.29)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6.1)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8.13)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14)
-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10.15)

### □ 군사분야 회담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6.14)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 □ 경제분야 회담

-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6.26)
-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6.28)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7.4)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10.22)

### □ 인도·사회분야 회담

-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6.22)
-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1.17)
-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공동보도문(2.27)
-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6.18)
-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11.2)
-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12.14)
- 북측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1.15)
-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3.20)
-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11.7)

##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 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감에,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사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재	인	김	정 은

##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무	위	원	장
문	재	인	김	정	은		

## □ 정치분야 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 문 점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3월 29일

판 문 점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변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미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 문 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 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과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조 명 균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단 장  
리 선 권

##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로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

## □ 군사분야 회담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4일

판 문 점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2]**

-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3]**

-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4]**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	선	인	민	군	대	장	노	광	철

【붙임 1】

##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증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③ 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붙임 3】

##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4】

##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 1. 평화수역 설정

####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 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의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의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900mm × 세로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붙임 5】**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 1. 공동이용수역 설정

-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공동조사

-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 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 □ 경제분야 회담

###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와 활용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협력 문제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남북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 ②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에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우선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이어서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6일

판 문 점



##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8일

판 문 점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 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남측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7월 4일

판 문 점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발생 시기별로 진행하며,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산림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남측은 11월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다음해 3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 시, 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22일

개 성

## □ 인도·사회분야 회담

###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6월 22일 금강산에서 남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상봉 행사는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하며, 상봉 대상은 각각 100명씩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1명의 가족을 동반하기로 하였다.
  - ② 생사확인외뢰서는 7월 3일까지, 회보서는 7월 25일까지, 최종명단은 8월 4일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③ 남측은 행사, 통신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봉 시작 5일전에 금강산에 파견하여 사전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 ④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상봉 장소인 금강산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하고, 남측은 현지 점검을 위해 시설 점검단을 6월 27일부터 파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합의되는 시기에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2일

금 강 산

##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2.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며,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북측은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행사와 남측과 북측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과 북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
4. 북측은 30명 규모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남측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를 나가기로 한다.
5.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의 활동을 취재하는데 필요한 기자단을 파견한다. 남측은 북측 기자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동계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취재의 지원 범위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 양측 올림픽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6.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선수단은 2월 1일에,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2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시기는 분야별로 양측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7. 북측은 경기장을 비롯한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현지시설 점검 등을 위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8. 북측은 동계 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9.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한다.
10.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11.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및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선발대 파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1월 17일

판 문 점

##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2월 2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다.
2. 북측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여 왕래한다.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은 3월 7일에 남측으로 이동하며, 귀환 시기는 양측 간 합의에 따라 편리한 시기로 한다.
3.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남측은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한다.
4. 북측의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다.

2018년 2월 27일

판 문 점



##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과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8일

판 문 점

##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단일팀 출전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당면하여 2019년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부터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체육분야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하고, 뜻깊은 계기에 친선경기진행 등을 비롯한 체육교류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2일

개 성

## 남북체육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체육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의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 내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으로 전달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체육관계자들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단일팀 출전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합동훈련 등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20 도쿄패럴림픽경기대회에도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32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개최 유치,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하여 체육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과 실무회의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2월 14일

개 성

## 북측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를 계기로 남측을 방문하는 북측 예술단의 공연 지원을 위하여 1월 1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한다.
2.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3. 북측 예술단의 공연을 위하여 제기되는 공연 장소,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관련하여 북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한다.
4. 남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5.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18년 1월 15일

판 문 점

##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3월 20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60 여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북측에 파견한다. 남측 예술단에는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YB,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등 가수들이 포함된다.
2. 남측 예술단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공연을 2회 진행한다.
3. 남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무대 조건, 필요한 설비, 기재 설치 등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 사전점검단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4. 북측은 남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5. 기타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18년 3월 20일

판 문 점

##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 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11월 7일

개 성

---

---

# 남 북 대 화

제78호(2016.1.~2018.12.)

---

---

<b>발행처</b>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Tel. 02-2076-1043 Fax. 2076-1230
<b>디자인 제작</b>	(주)늘품플러스 Tel. 070-7090-1177
<b>인쇄일</b>	2020년 12월 15일
<b>발행일</b>	2020년 12월 21일

---

---